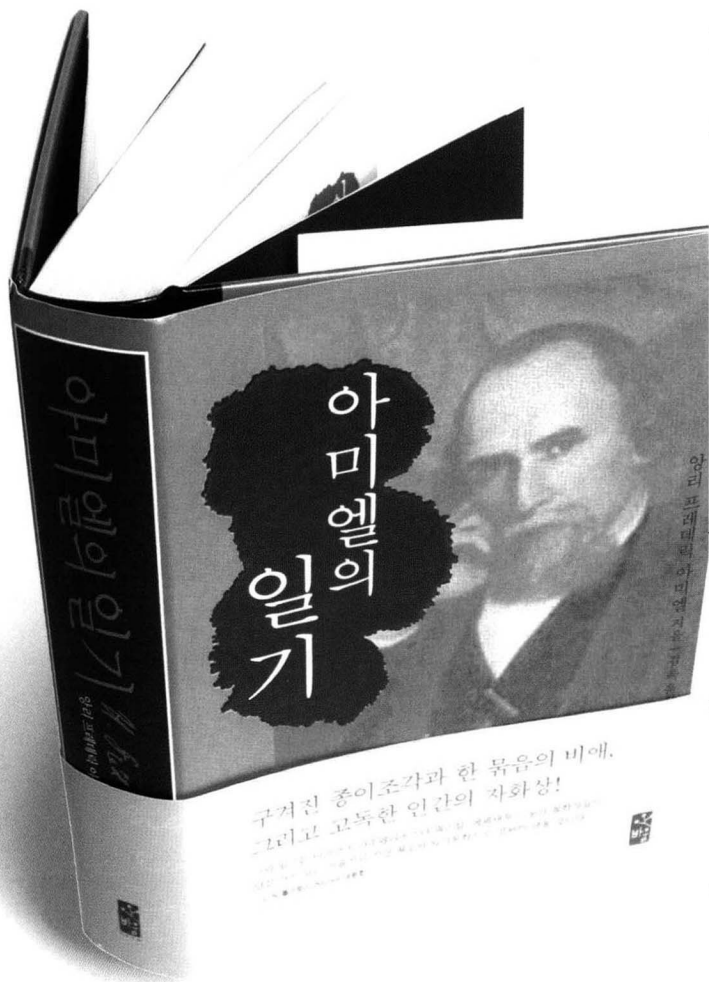


잠언, 그리고 잠언들

이 글을 쓴 김숨은 1997년 대전일보 신춘문예, 1998년 <문학동네> 동계문예공모로 등단했다. <느림에 대하여> <중세의 시간> <투견> <새> <제8전사실> 등을 발표했다.



잠언이 종잇장처럼 가벼워진다. 절대적인 것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절대적인 것은 소멸하거나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정하고, 의심하고, 투쟁해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기에 사람들은 절대적인 것들을 망각하는지도 모른다. 망각은 강박적으로 습득된다. 그리고 집단에 의해 반성 없이 학습되어진다.

절대적인 것 한 가지를 예로 들라면 '죽음' 을 들겠다.

“인간은 자신이 언젠가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죽은 자들을 모독한다. 자신이 죽은 자들이 남겨놓은 자취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 대한 존경과 추억을 경멸한다. (...) 이 땅 위에서 인간은 더 이상 애정의 신비와, 신을 향한 직감과, 종교적 희생을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 세대는 부패했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욱 부패한 세계에서 영원한 질서를 갈망하게 될 것이다.”

1861년에 씌어진 앙리 프레데릭 아미엘(1821~1881)의 '죽은 자들을 위한 독백' 이다.

궁핍과 질병과 폭력과 전쟁과 고독과 소외는 아미엘에게 1만7,000 페이지에 달하는 일기를 쓰게 했다. '남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쓴 것이' 결코 아닌 그의 일기가 발견되어지고, 기록된 지 백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읽혀지는 이유는, 개인의 일상적 기록을 넘어 근원적이고 절대적인 것, 인간과 죽음과 구원과 역사를 처절하게 대면하고, 성찰을 통해 철학으로 확장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진리를 망각한 인간

“인간은 전력을 다해 진리에 대항한다. 마치 병든 아이가 약을 거부하는 것처럼, 플라톤의 동굴에서 사람들이 빛을 피하는 것처럼.”(1874년, 진리에 대항한다)

아미엘이 관찰한 인간은 진리를 갈망하지 않고 진리에 대항한다. 진리에 대항하지 않는 진정한 인간일수록 진리에 대항하는 인간들에게서 고립된다.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항해야만 한다.

“사물을 바라보는 힘을 기르고 평화를 사랑할수록 인간은 고독해진다. 이제 인간의 세계는 몇몇 전체적인 영웅들의 자리에 서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죽일 수 있다는 논리를 말한다.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일까. 바로 투쟁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지적했던 헤라클레스의 선견지명을 떠올리게 한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두 다리로 지면을 밟고 선 대부분의 피조물들은 잘못 만들어진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며, 어리석음과 악의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싶어했다.”(1872년, 고립된 인간의 아름다움)

진리로부터 망각된 인간

진리에 대항하는 인간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는 무질서와 전쟁과 변태적이고 우둔한 이타利他 사랑으로 넘쳐난다. 부패의 냄새가 세계의 공기를 오염시켰다. 개인은 파괴와 파멸로의 유혹에 도취해 있다.

오직, 인간이 목적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세상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인간은 사라지고 없다. 인간은 영혼의 역진화로, 광대한 진화기를 거쳐 발전되어온 것들을 잃고 소멸되어버렸다. 진리를 망각하고, 그럼으로써 진리로부터 망각되어진 인간은 자멸할 수밖에 없다.

1851년에 이미 아미엘은 인간이 사라진 세계를 예견했다.

“도처에서 싸움과 논쟁, 불화가 빈번하다. 세상이 시끄럽다. (...) 인간이 기록한 역사는 살육을 위한 약탈과 전쟁을 평화를 위한 숭고한 희생으로 기록하고 있다. (...) 인간의 세계는 몇몇 전체적인 영웅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대중의 정치로 넘겨졌다. (...) 무조건 나와 같은 자리에서 서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죽일 수 있다.” (1872년, 고립된 인간의 아름다움)

“끊임없는 평등화와 분업에 의해 오직 사회만 존재할 뿐 인간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진보와 영혼을 실리가 대신하고, 아름다움을 공업이, 경제가 종교를, 그리고 수학이 시詩를 대신할 것이다. 우울함이야말로 다음 세기의 가장 흔한 지병이 될 것이다.”(1851년, 민주주의 운명)

“개인의 개별적 정신과 개성을 특수화해 압살하는 것, 인간을 사회의 톱니바퀴로 전락시키는 것, 의식의 자성 대신 사회를 주제로 삼는 것, 정신을 사물에 굴종시키는 것, 인간에게서 인격을 빼앗는 것 등이 현대를 지배하는 경향이다.



《아미엘의 일기》 알리 프레데릭 아미엘 지음 | 김옥 옮김 | 바움 | 492쪽 | 값 18,000원

(...) 인간이 일상의 사회에 묻혀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살아 있다' 라고 말할 수 없다.”(1852년, 현대를 지배하는 것)

오직 완전한 고독, 혹은 타인

아미엘은 세상을 완전한 타인으로 이해했다. 세상으로부터도 그는 완전한 타인이었다. 오랜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아미엘은 의식을 치르듯 세상에 기침과 가래를 끊임없이 토해 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구도 후의 현기증 속에서 신음하는 아미엘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은 철저하고 처절한 고독이었다.

“밤의 시간이며, 침묵과 고독의 시간이며, 너에겐 정숙한 아름다움과 슬픔이 있다. 너는 나를 슬픔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한다. 너는 우리에게 이미 옛날에 없어진 갖가지 사연들과 앞으로 언젠가는 소멸될 일들을 말해준다. 그런 한편으로 너는 우리에게 ‘굳게 마음 먹어라’ 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도 하고, 휴식도 약속해 준다.” (1851년, 침묵과 고독의 시간이며)

아미엘은 성공한 철학자도 아니었고 평생을 지병인 기관지 카타르로에 시달렸으며, 독신으로 살았다. 그의 사상은 주목받지 못했다. 대학교수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는 궁핍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한 푼의 돈을 위해 권력자의 명령을 따르고 스스로를 집단에 구속시키기도 했으며, 미치지 않기 위해 독서를 하고 대화를 하고 글을 쓰고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스스로를 '무정란의 달걀, 속이 빈 호두, 뇌가 없는 두개골, 아무것도 아닌' 나로 치부하기도 했다.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아미엘에게 일기는 고독과 고립으로부터 얻은 지혜들을 토해놓는 광대한 우주였으며, 고독과 고립으로 얻은 상처를 치유하는 고해소이기도 했다. 일기를 통해 그는 고요하게 세상을 반목하고 세상과 투쟁했다. 그리고 그의 일기에 기록된 잠언들은, 백여 년이 지난 지금 개인에게 발작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잠언이 사라진 시대. 개인은 무질서 속에서 진리에 대항하며 죽음을 망각하고 의식 없이 살아간다. 어쩌면 잠언에 무감각해진 개인은 그의 잠언들에 대해서도 발작적 공포조차 일으키지 않을지 모른다.

아미엘의 잠언과 잠언들 속에서 나는 고독의 두려움과 위대함을 생각한다. 무의식과 무반성과 무질서와 무원칙과 파괴의 환영幻影에 중독된 나 자신과 개인에게 아미엘의 고독을 권유한다. ☒